



동방 경제 포럼 소식

연해주 수모토리사 동방경제포럼서 중국 투자자들과 계약 3건 체결 예정이다. 연해주 사절단이 중국 지린성 방문시 합의를 본 사안들이다.

《Moskovski Komsomolets》

아무르 주 정유공장 대표들 동방경제포럼서 잠재 원료공급자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유공장은 2019년에 제품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타스 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 종합발전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국회에 계획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Khabkrai.ru》

일본 기업,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스파센터 건설을 할 예정이다. 투자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토지제공 계약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된다.

《타스 통신》

미쯔비시는 사할린에 에탄올 공장 건설을 하고자 한다. 의향서를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체결하게 된다.

《Delovoi Eisk》

동방경제포럼서 극동 지역 음식 시식회가 열린다. 사절단들은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캄차카, 야쿠티야 등 지역의 음식을 시식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NIA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행사 기간에 폭우가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과 손님들에게 악천후를 대비 우산과 비옷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였다.

《RIA News》

«동방경제포럼은 극동 투자가치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좋은 플랫폼입니다.»라고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기관 셀라하예프 사장이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g-online.ru》

극동 지역 소식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비자체제 간소화 법안이 국회 가을회기에 검토될 예정임을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밝혔다.

《타스 통신》